

- 본문 : 누가복음 16장 19~31절
- 제목 : “음부에서 울부짖는 한 부자의 절규”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양의 근시안적인 모습은 인간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 그래서 사람을 양에 비유한다. 인생은 근시안적이다. 내일보다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내일이라고 해야 겨우 칠팔십 년 정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짧게 살지만 영원한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 사실은 부자로 살았든 가난한 거지로 살았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 살고 있는가? 영원한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살고 있는가?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생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19~21, 25)
2.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22~23)
3.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 중에서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25, 26, 29)
4. 음부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음부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5. 음부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정리해보라.
 - * 마태복음 10:15
 - * 로마서 2:8~9
 - * 요한계시록 21:8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부자가 죽은 나사로를 보내어 자신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요청했을 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 것을 권했다. 오늘날 1,147명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은 당신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번 주간에 당신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들려주고, 어느 태신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줄 것인가?

· 말씀기도제목

1. “음부에서 울부짖는 한 부자의 절규”를 기억하고 지옥의 참상을 깨달을 때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해 더욱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2. 내가 작정한 모든 태신자들이 부자의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처럼 구원 받을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제4차 새생명축제에 초대할 태신자 1,147명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여! 지옥을 향하는 인생이 복음을 듣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